상법개정 그 이후 1

정기주총에서 관찰되는 변화들

Part Ⅰ 개정 상법과 자사주
Part Ⅱ 2026 정기주총 의안 변화

LS증권

미국시황/ESG
Analyst 김윤정
yunjeong.kim@ls-sec.co.kr

LS증권 투자전략팀 김윤정입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자본시장 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곡선은 더 가파른 랠리를 보였습니다. 대외변수로 인한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도, 제도 개정으로 보강된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체력은 증시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개정 상법이 기업 자사주 전략과 이번 정기주주총회 의안 구성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Part I **개정 상법과 자사주**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자사주 제도의 개편 동향과 기업들의 활용 행태 변화**를 다룹니다.
과거에는 증시 흐름에 따른 차익을 노린 자사주 취득·처분 양상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2년간은 주주환원 기조 확대 흐름 속에서 **매입과 소각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통계상 자사주 소각 공시 전후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CAAR)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소각 의무 등 제도 변화를 전후한 과도기적 혼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현금배당은 여전히 주요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또한 확인합니다.

Part II는 코스피 200 기업들을 중심으로 **2026 정기주총 의안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코스피200 기업의 정기주총 소집공고를 전수 점검했고, **개정 상법의 정관 반영**이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회 구성 변화 관련 정관 변경은 이사회 운영 효율화와 경영권 방어력 확보라는 두 축의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정관 내 자사주보유처분조항 신설,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주주 승인 안건** 등 자사주 관련 항목도 개정 상법의 영향을 받은 변화 영역입니다.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정관 내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자사주보유처분계획에서 나타난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 비과세 감액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소** 등 의안도 시장의 기대를 자극합니다.

향후 발간 예정인 동명의 시리즈에서는 상법 개정 이후의 후속 법안과 제도 정비 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상법개정 그 이후 1 | 정기주총에서 관찰되는 변화들

Part I 04 개정 상법과 자사주
즉각적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

Part II 14 2026 정기주총 의안 변화
코스피200 기업 사례 분석

Part I

개정 상법과 자사주

즉각적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

- 상법 개정이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
- 이익소각 급증, 초과수익률의 과도기 구간

상법 개정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 개정 상법은 자본 효율성을 강제하여 ROE의 구조적 상승을 견인

- 1·2차 개정 상법은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적 기능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 대리인비용 감소 효과에, 사업 포트폴리오 효율화, 비핵심자산 유동화 등 경영진 이익보다 주주가치를 우선하는 결정으로 자본효율성 확보 가능. 다만, 중장기에 걸친 지배구조 변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법 개정은 즉각적이기보단 간접적 기여
- 반면, 3차 개정 상법은 자사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소각을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관여한다는 차별성 보유

시장이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부분도 ROE 산식의 분모(Equity, 자기자본) 감소에 기인한 변화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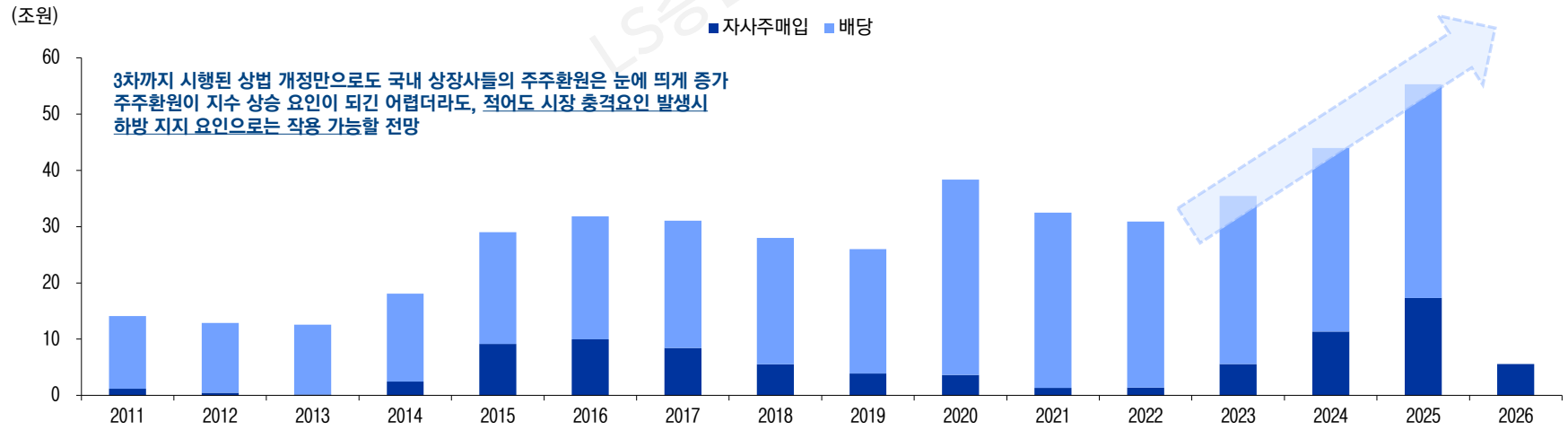
$$ROE \uparrow = \frac{Net\ Income \uparrow}{Equity \downarrow}$$

1·2차 - 지배구조 투명성→자본효율성 확보 (간접적)

3차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즉각적)

LS증권 리서치센터

연도별 한국 주주환원지표 추이



주: 자사주매입은 체결일 기준, 배당은 결산 기준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개정상법: 자사주는 즉시, 지배구조는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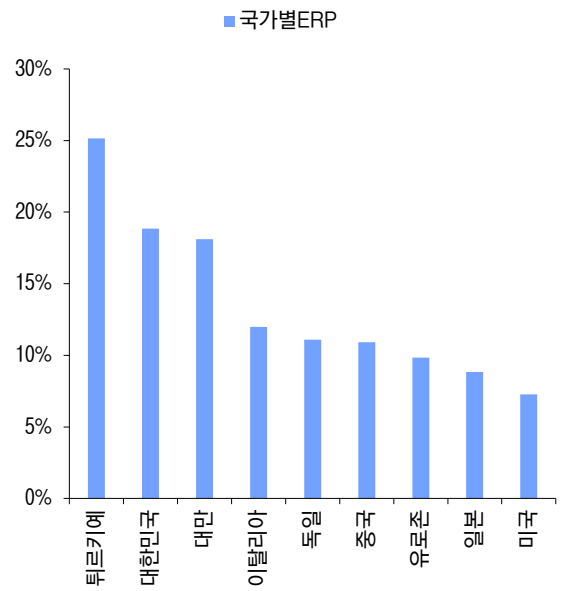
● 1~3차 개정 상법 내용 및 시행시점

구분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시기
1차 개정상법 (2025.7.22 공포)	이사 충실의무 확대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	2025.07.22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사외이사	독립이사	2026.07.23
	독립이사 구성비율 증가	이사 총 수의 1/4 이상 의무 선임	이사 총 수의 1/3 이상 의무 선임 *대규모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독립이사로 선임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해야 함	2026.07.23 *2027.07.22까지 요건 구비(부칙제2조)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3% 룰 적용	모든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3%룰 적용	2026.07.23
	전자주주총회 도입	-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개최 병행 의무화	2027.01.01
2차 개정상법 (2025.9.9 공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도 배제 금지	집중투표제도 정관상 배제 가능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도 정관으로 배제 금지	2026.09.10 *시행 후 최초 이사선임 주주총회부터 적용(부칙제2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증가	의무 1인	의무 2인	2026.09.10
3차 개정상법 (2026.3.6 공포)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시행일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이내	2026.03.06 *기존 자기주식 소각 2027.09.06
	예외적 보유·처분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	주주비례·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법령에 따른 활용, 정관에 따른 경영상 목적의 경우, 매년 주주총회 승인 후 보유·처분	2026.03.06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의결권 제한만 규정 이사회 결의로 교환·상환사채 발행 허용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자익권(배당·신주인수권 등), 교환·상환사채 활용, 질권설정, 합병·분할시 신주배정 등 금지 명문화	2026.0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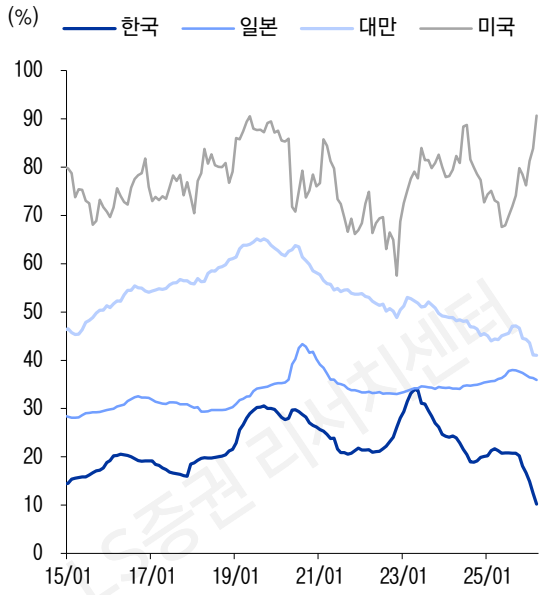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낮은 배당성향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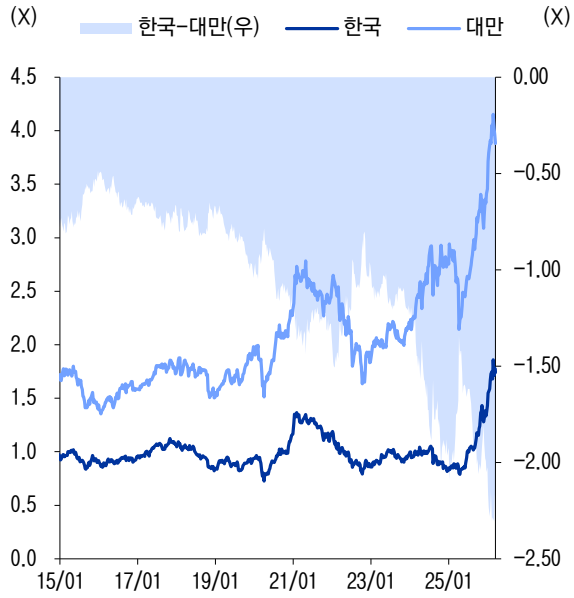
위험 프리미엄(ERP)은 한국-대만 유사함에도,



20~40%p가량 벌어진 배당성향 격차



한국-대만 PBR 격차 역시 점차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당시 주주환원 기업 세제혜택 강화하고자 했으나, 정권 교체 후 방향성 변화. 시행된 것은 배당소득분리과세 뿐

구분	내용	관련법	결과
배당소득세 세율인하·분리과세	• 고배당기업(배당성향 40% 이상 or 25%이상이면서 배당성장률 10% 이상) 대상 • 구간별 14~30% 분리과세 세율 적용 (기존 2천만원 이하 14% 제도는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2028년)
법인세 세액공제	• 주주환원 증가금액 5% 법인세 세액 공제	법인세법	미상정
상속세 체계 개편	•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 최대주주 할증평가(20%) 폐지 •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상속세, 증여세법	부결

자료: Bloomberg, LSEG, LS증권 리서치센터

Part I 개정 상법과 자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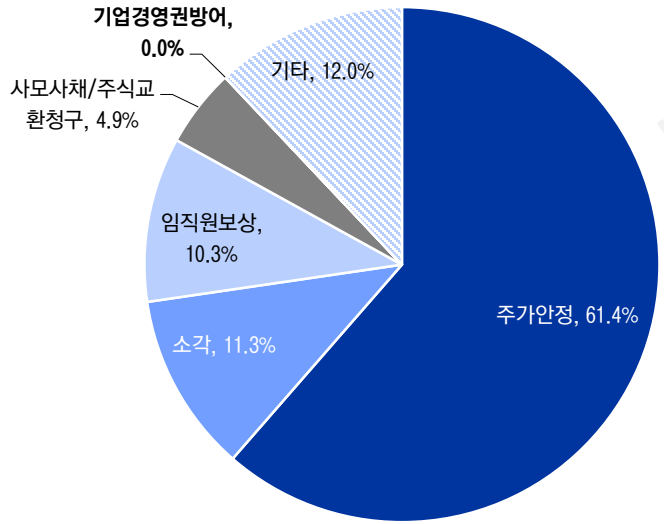
상법 개정 전후로 나타난
자사주 활용과 증시 영향 변화

화두는 배당에서 자사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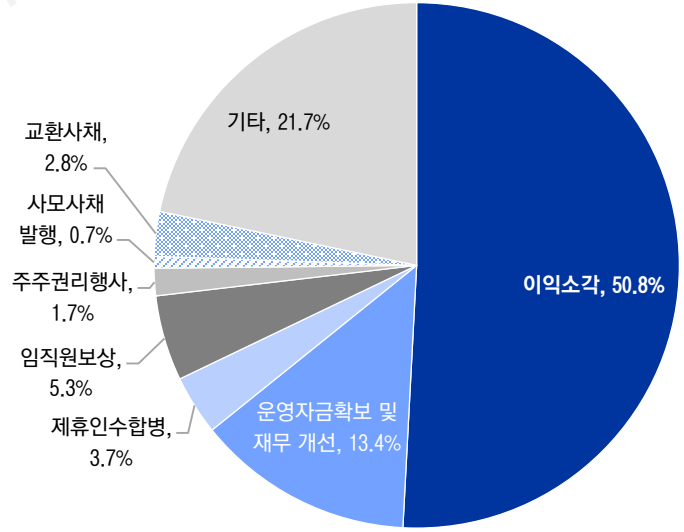
● **그간 자사주 공시에 기재되어 왔던 자사주 취득 및 처분 사유, 3차 개정상법에 의한 제한**

- 2019년 이후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추가 매입건은 거의 없었음.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주주환원(이익소각)관점 처분 비중 증가
- 3차 개정 상법에 의해 자사주의 활용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합병/분할시의 신주배정이나 사채 발행시 질권설정 등 목적의 취득처분은 향후 크게 위축될 전망

자사주 취득 사유별 비중 (2019년 이후 누적)



자사주 처분 사유별 비중 (2019년 이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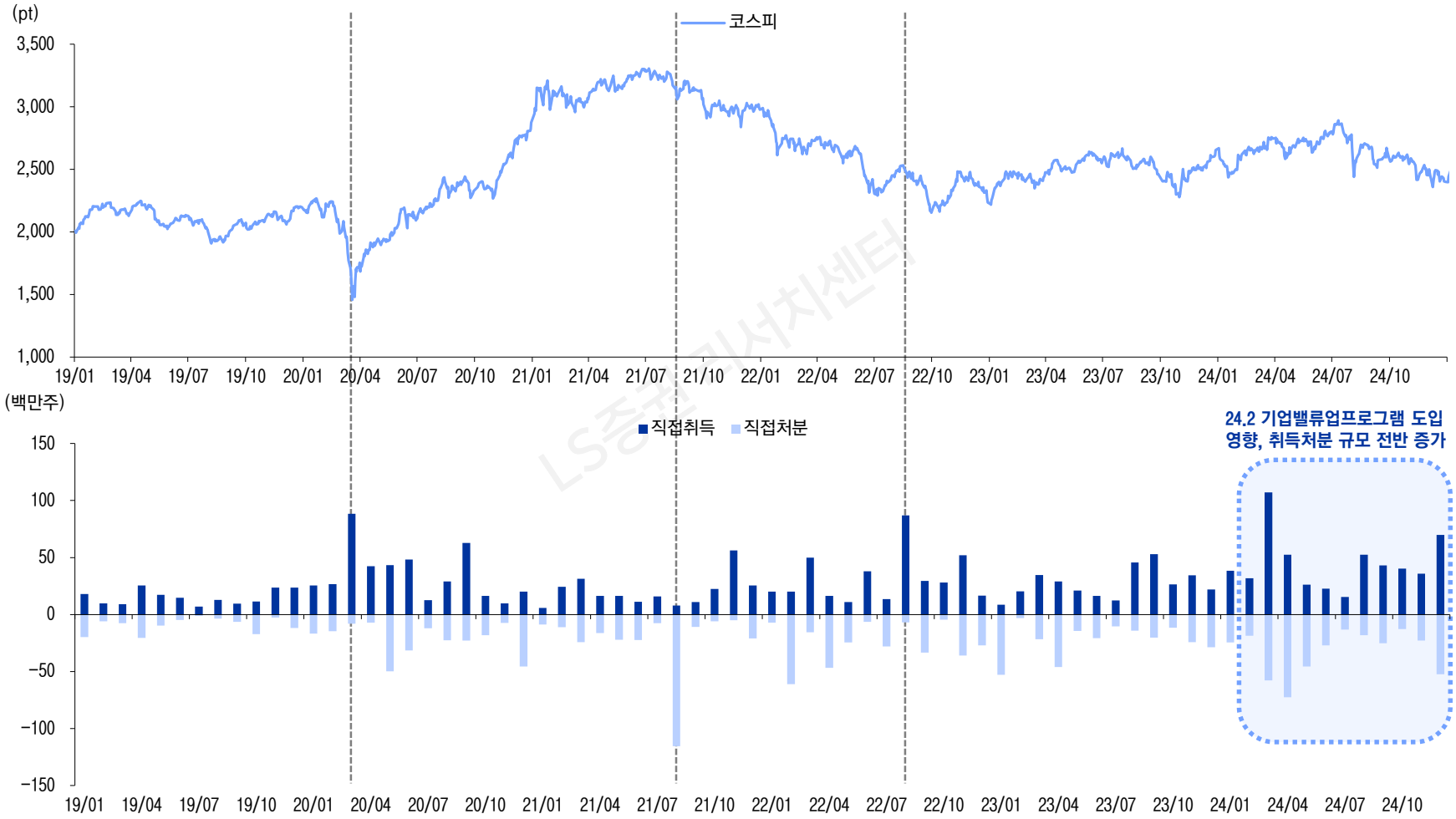


자료: DART,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과거 증시 등락에 따라 자사주 취득·처분에 나섰던 기업들

자사주 취득처분 수량과 코스피지수 (2019~2024): 주주환원보다는 트레이딩에 가까웠던 모습에서, 기업밸류업프로그램 이후 변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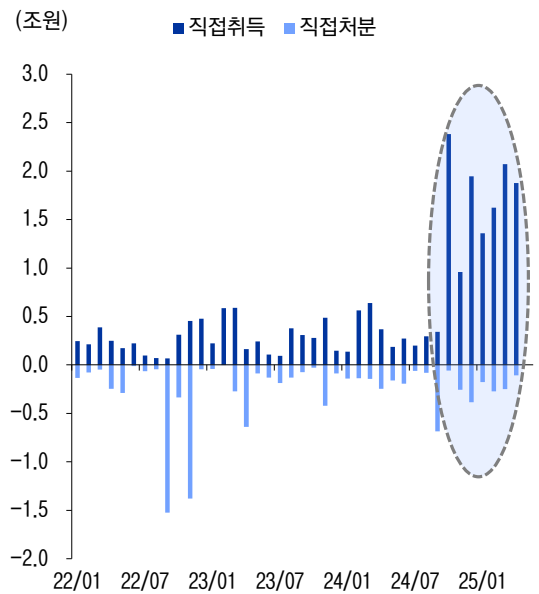
주: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사 보통주 대상 직접취득·처분 주식수 기준. 체결금액 집계시 소각처분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로 주식수를 집계
자료: DART,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눈에 띄게 늘어난 자사주 매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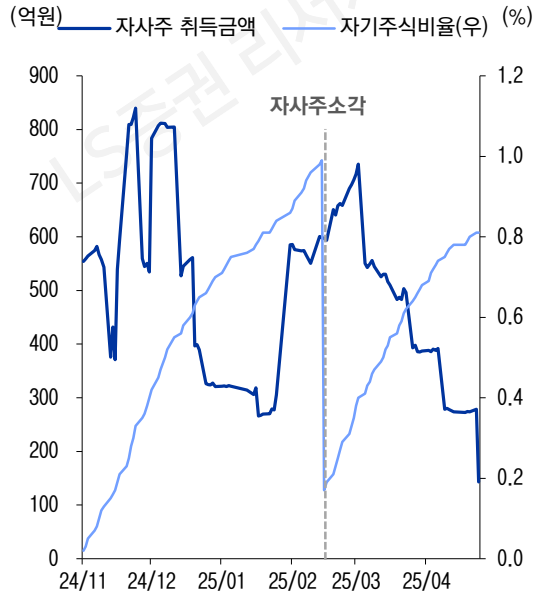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성과

- 2024년 시행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으로 기업들이 주주환원율 목표 제시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 그와 관련한 행보로서 자사주 취득 규모가 4Q24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
-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자사주 취득규모 증가에 크게 기여했던 두 기업은 고려아연과 삼성전자. 다만,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주주환원으로 보기 어려움. 삼성전자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

4Q24 이후 대폭 늘어난 자사주 취득 규모*



10년만에 재개된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



2024년 누적 자사주 취득금액 상위 기업*

No.	종목코드	기업명	자사주 취득금액 (십억원)
1	A010130	고려아연	2,124.9
2	A005930	삼성전자	1,785.9
3	A138040	메리츠금융지주	862.4
4	A105560	KB금융	820.0
5	A055550	신한지주	700.0
6	A033780	KT&G	546.5
7	A000270	기아	500.0
8	A068270	셀트리온	439.5
9	A035420	NAVER	405.1
10	A086790	하나금융지주	396.9
11	A005935	삼성전자우	206.6
12	A005380	현대차	203.0
13	A259960	크래프톤	199.2
14	A042700	한미반도체	191.9
15	A145020	휴젤	172.5
16	A006800	미래에셋증권	170.3
17	A012330	현대모비스	161.8
18	A402340	SK스퀘어	154.6
19	A003550	LG	151.7
20	A316140	우리금융지주	136.6

주: 월별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사 보통주 대상 직접취득 및 처분 체결금액 기준 / 자사주 취득금액 상위 기업은 자사주 직접취득 및 신탁취득 체결건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DART,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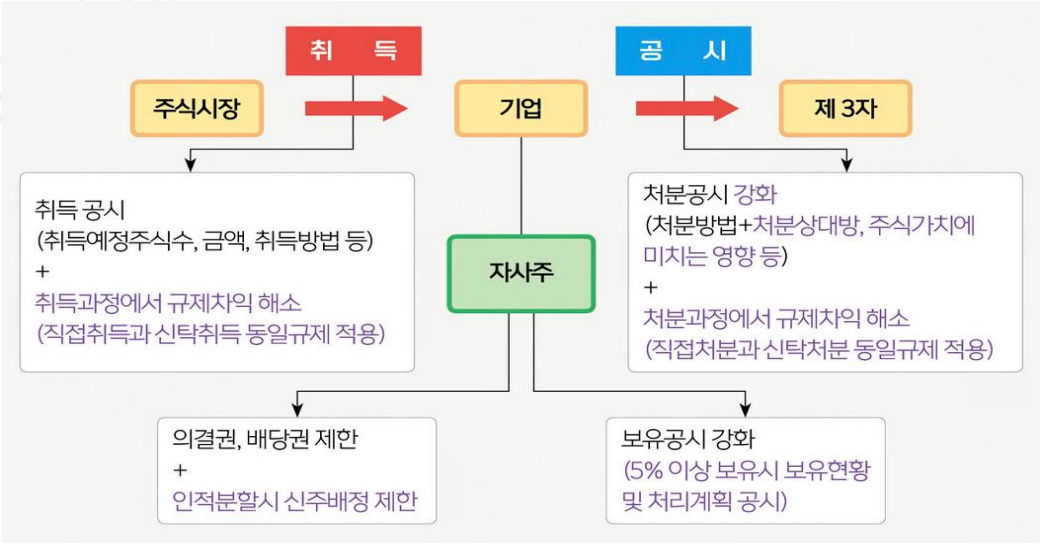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앞서 진행된 자사주 절차 개선: 주주가치 훼손 가능한 관행 철폐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사주 관행 개선

- 자사주 제도 개정의 주된 내용은 ①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자사주 마법 금지), ②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 ③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차익 해소
- 특히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사주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 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별도 서류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 또한, 모든 상장법인이 자사주 처분시에 처분 목적과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2024년 개정 당시)
- 해당 제도 개정은 지난해 한차례 더 강화. ① 공시대상 자사주 비중 1% 확대, 공시 의무 횟수 연 2회로 확대, ②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③ 반복적 자사주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 3차 상법개정안 이전 자사주 소각 및 처분 유인을 높였던 제도 개정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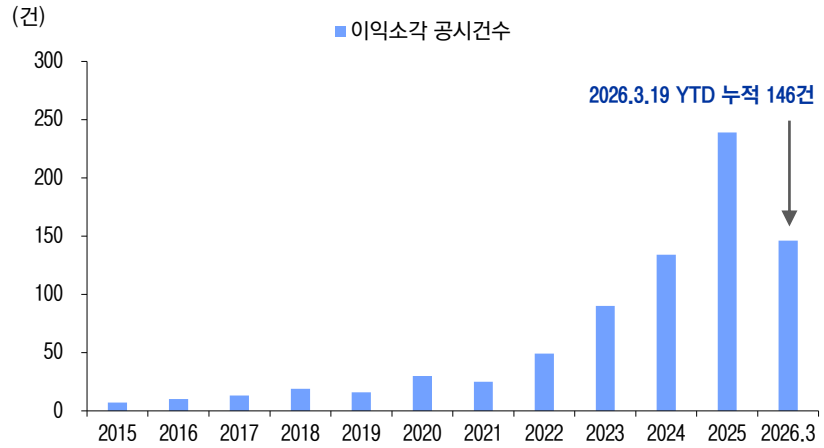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내용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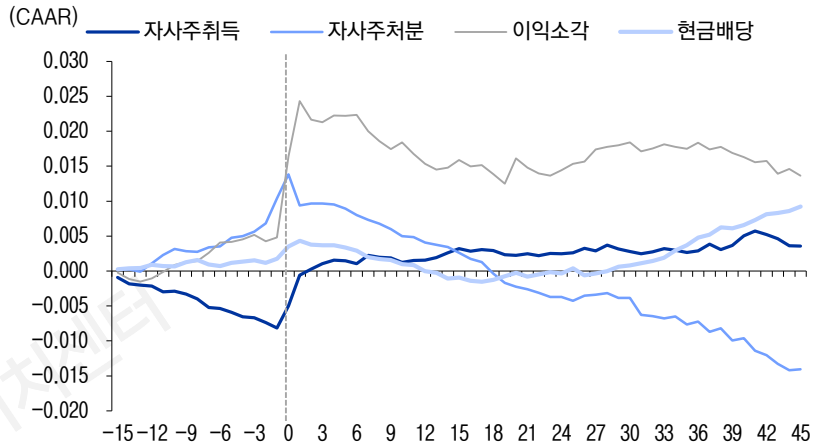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언론종합,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2025 이후: 이익소각 급증, 초과수익률상의 과도기 지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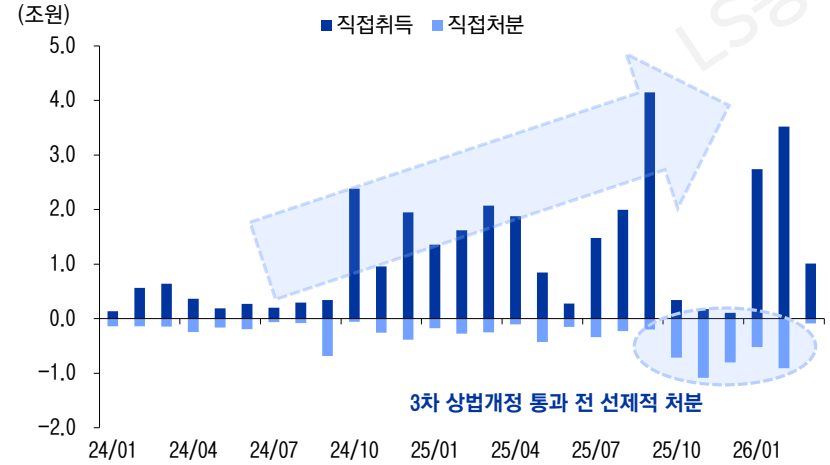
이익소각 공시는 2026YTD 이미 전년도의 6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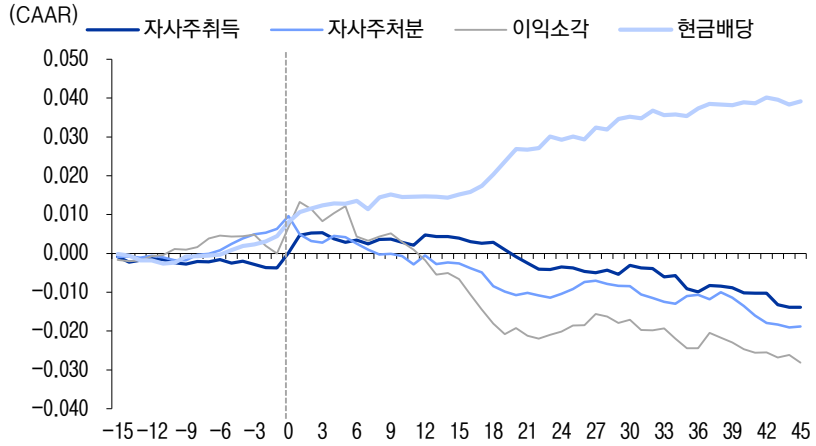
누적평균초과수익률('15~): 이익소각이 가장 유의미한 기여



자사주 취득처분 금액 기준 집계 (이익소각은 금액에 집계되지 않음)



누적평균초과수익률('25~): 의무화 시행 전후 과도기, 소각 효과↓



자료: DART,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Part II

2026 정기주총 의안 변화

코스피200 기업 사례 분석

- 쟁점영역: 정관변경, 자사주보유처분계획
- 환원영역: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자사주소각, 자본준비금 감소

2025 정기주총 돌아보기: 상법개정에 앞선 정관 변경 주주제안 ↑

● 주주제안의 양적·질적 개선, 상법 개정 기대에 정관 변경 요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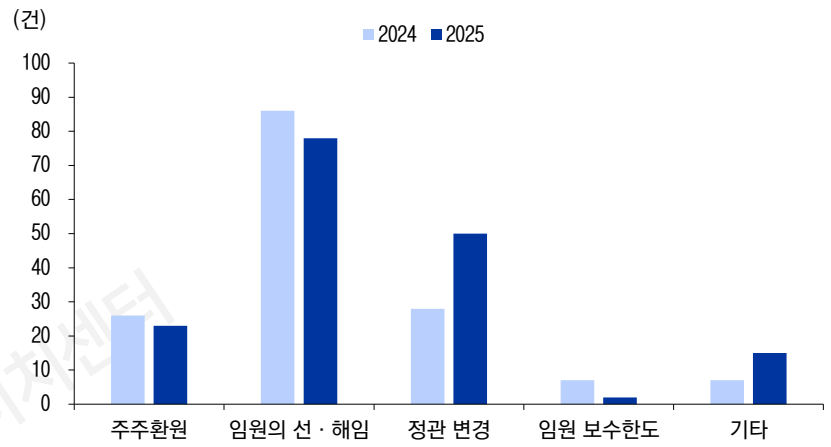
- 아주기업경영연구소(AJURI)는 국내 801개 기업을 대상 2025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 주주제안 건수는 전년 154→168건으로 증가
- 기존 배당이나 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목적의 주주제안이 다수 제안되었으나, 2025 주주총회에서는 적극적 기업 경영 참여와 기반 제도를 마련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이 유의미한 증가. 지난해 3월 민주당의 상법개정 추진 시도가 자극제로 작용한 결과
- 다만 정기주총 주주제안 가결률은 8.9%에 불과해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였음

2024 vs 2025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 안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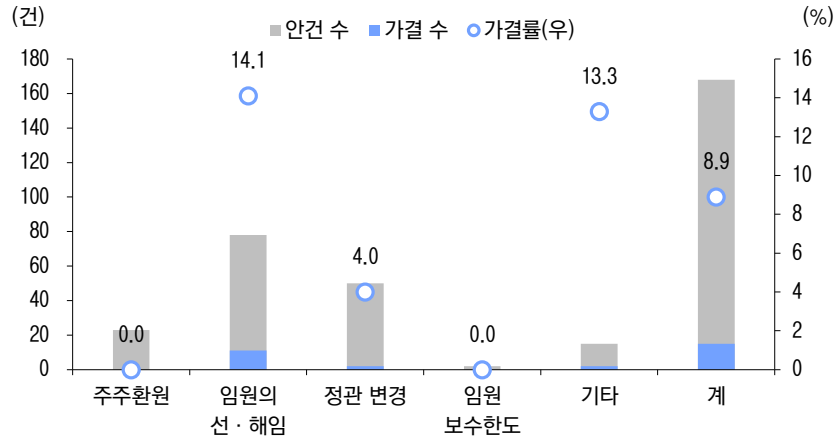
구분	안건	2024	2025
재무구조	액면분할	1	1
	신주발행	0	1
	자사주 소각	6	5
	무상증자	1	0
	자본금 전입	1	0
	현물배당	0	1
	중간배당	1	1
지배구조	임원 수	3	4
	초다수결의제 삭제	0	1
	집중투표제 도입	3	11
	이사 자격	2	1
	이사회 내 위원회	1	2
	전자투표제	1	3
기타	권고적 주주제안	1	5
	기업설명회 개최 의무화(정례화)	2	4
	소액주주 보호 명문화	0	2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도입	1	2
	기타	4	7

자료: AJURI, LS증권 리서치센터

2024 vs 2025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안건 수



2025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별 가결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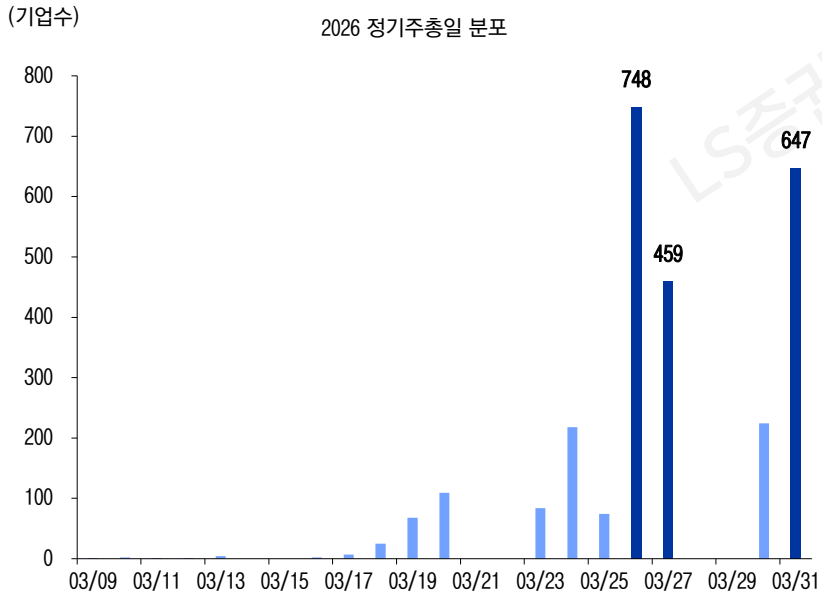
2026 정기주총, 코스피200 기업 의안 살펴보기

●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모두 완료한 코스피200 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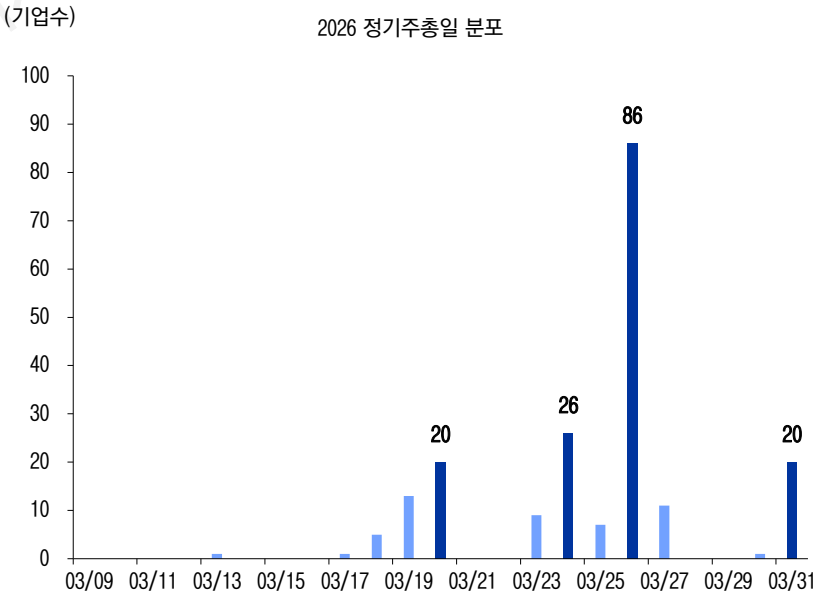
- 코스피200 기업들이 시가총액 및 자산총액 대형주에 속하는 만큼, 코스피200 기업 다수가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3%룰 등 개정 상법의 영향권
- 국내 전체 상장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일정이 대체로 3월 후반부에 몰려있고, 일부 기업들은 주주총회소집공고가 미비한 상황
- 소집공고 및 의안 공개가 모두 완료된 코스피200 기업들의 의안 내용을 통해 올해 정기주주총회 변화 내용을 가늠

- 정기주주총회 관전 포인트는 ①정관 변경, ②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③자사주 소각 및 감액배당 관련 자본감소(감자) 관련 의안

국내 전체 상장주식 정기주총 일정 분포



코스피200 기업 정기주총 일정 분포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Part Ⅱ

2026 정기주총 의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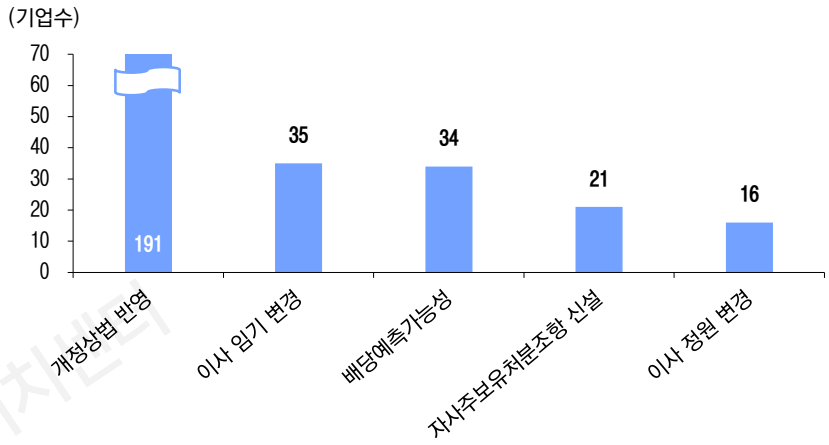
개정상법 반영하는 정기주총
의안상 주목할 포인트 -쟁점영역

정관은 기본적으로 개정상법 반영, 다양한 규제 우회 수단 검토

●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확대 vs 이사회 구성 유연화**

- 이사 임기 변경: 이사의 임기에 유연성을 주면서 이사 임기간 시차를 두면 적대적 주주제안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방어 가능. 다만 행동주의펀드에서는 이사회 견제 기능의 약화로 해석될 수 있어 반발 여지
- 이사 정원 상한 축소 :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총 이사수를 줄임으로서, 전문성 있는 소수 정예 구성의 효율적 이사회 운영. 반면 지나치게 적은 수의 이사 인원 규제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을 어렵게 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여지도 존재
- 회사는 주주들에 이사 임기 변경 및 이사 수 변경에 대한 목적과, 정관변경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 훼손 우려 없음을 설명해야 함

코스피200 기업 정관변경 의안



정기주총에서 외국인주주(행동주의펀드 등)의 이사 선임 가능성 시뮬레이션 –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2명 의무화 가정시

	2025				2026			
	분리선출 이사		분리선출 아닌 이사		분리선출 이사		분리선출 아닌 이사	
	회사(개사)	비중(%)	회사(개사)	비중(%)	회사(개사)	비중(%)	회사(개사)	비중(%)
1명 선임가능	35	23.3	23	15.3	0	0.0	39	26.0
2명 선임가능	13	8.7	3	2.0	0	0.0	6	4.0
3명 선임가능	0	0.0	3	2.0	0	0.0	3	2.0
4명 선임가능	0	0.0	0	0.0	0	0.0	1	0.7
0명(선임불가)	5	3.3	39	26.0	1	0.7	45	30.0
집중투표 불가	96	64.0	52	34.7	26	17.3	38	25.3
선임할 이사 없음	1	0.7	30	20.0	123	82.0	18	12.0
계	150	100.0	150	100.0	150	100.0	150	100.0

자료: DART, 경제개혁연구소, LS증권 리서치센터

자사주보유처분조항으로 확보하는 '예외적 보유처분' 명분

● 예외적 자사주 보유처분을 정관에 명시하기 위한 절차

- 정관에 명시한 보유처분 사유에 준하는 이유(경영상의 목적)로 자사주보유처분계획을 발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정관 특별결의를 요함
-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은 물론, 현재의 자사주 지분율이 0%대로 거의 없는 기업들도 관련 정관 개정안을 금번 주주총회 의안으로 제시

자사주보유처분조항 정관 예시

제10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본 회사는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사업구조의 개편, 시설투자,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임직원 보상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예외적 자사주 보유·처분 가능 사유

항목	내용
임직원 보상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사주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식교환 대가	포괄적 교환 등에서 자기주식을 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정관 특별결의)	기술도입·M&A 대비·재무구조 개선 등 포괄적 경영상 목적 단,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

자료: DART, Qn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200 기업 중 정관변경 의안에 자사주 보유처분조항을 신설한 기업들

No	종목코드	종목명	자사주비중 (보통주,%)	자사주수 (백만주)	DPS (2024,원)	DPS (2025,원)
1	A003090	대웅	29.67	17.25	200	200
2	A003240	태광산업	24.41	0.27	1,750	1,750
3	A006800	미래에셋증권	23.13	131.93	250	300
4	A011780	금호석유화학	13.44	3.50	2,200	1,700
5	A036570	엔씨소프트	9.99	2.15	1,460	1,150
6	A192080	더블유게임즈	8.94	1.89	1,200	1,200
7	A001040	CJ	7.26	2.12	3,000	3,300
8	A259960	크래프톤	7.08	3.35	-	2,240
9	A069260	TKG휴켐스	6.13	2.51	1,000	1,000
10	A068270	셀트리온	5.35	12.36	750	750
11	A030200	KT	4.34	10.93	2,000	2,400
12	A014680	한솔케미칼	4.11	0.47	2,100	2,600
13	A000660	SK하이닉스	3.06	21.79	2,204	3,000
14	A009420	한올바이오파마	2.77	1.45	-	-
15	A096770	SK이노베이션	1.1	1.86	2,000	-
16	A069620	대웅제약	0.69	0.08	600	600
17	A352820	하이브	0.25	0.11	200	500
18	A062040	산일전기	0.2	0.06	420	1,250
19	A023530	롯데쇼핑	0.06	0.02	3,800	4,000
20	A018880	한온시스템	0	0.01	-	-
21	A361610	SK아이이테크놀로지	0	0.00	-	-

자사주 지분율이 높다고 모두 소각 대상인 것은 아니다

● '예외적 자사주 보유·처분' 위한 기업의 관련 정관 마련 과제

- 단순히 자사주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전부 소각하게 되는 것은 아님. 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조항' 확보를 위한 자사주 보유처분 정관변경안과 계획승인안에서 기업-주주간 눈치싸움 예정
-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통해 기보유 자사주의 보유목적을 명시,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함(대부분 임직원보상, 운영자금확보 등)
- 추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공시 규정의 구체화 필요

시가총액 5천억원↑, PBR 1배 미만 기업 내 자사주 비중 상위기업

No.	코드	기업명	업종명 (WI26)	시가총액 (십억원)	PBR (TTM,X)	자사주비중 (%)
1	A001720	신영증권	증권	38,305.2	0.54	53.1
2	A004700	조광피혁	화장품,의류	5,306.0	0.38	46.6
3	A001270	부국증권	증권	10,141.8	0.70	42.7
4	A003090	대웅	건강관리	16,803.0	0.83	29.7
5	A004990	롯데지주	상사,자본재	39,445.9	0.37	27.5
6	A016590	신대양제지	비철,목재등	6,608.8	0.55	26.7
7	A085620	미래에셋생명	보험	26,340.0	0.41	26.3
8	A034730	SK	에너지	296,536.1	0.42	24.8
9	A003240	태광산업	화학	16,701.0	0.18	24.4
10	A003540	대신증권	증권	23,431.9	0.52	24.2
11	A006800	미래에셋증권	증권	413,405.5	0.98	23.2
12	A056190	에스에프에이	기계	12,514.2	0.75	22.3
13	A145720	덴티움	건강관리	5,667.2	0.86	22.1
14	A002030	아세아	건설,건축	6,072.9	0.49	20.8

자료: 법무부, DART,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관련 규정: 예외적 보유처분 관련 주총승인 필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필수 기재사항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보유 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종류·수 및 취득 방법

-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 기준의 세부 사항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비율의 변화

- 예정된 보유 기간
- 예정된 처분 시기

자사주보유처분계획: 보유 전량 소각인가, 대응 미흡인가

코스피200 내 자사주지분율 10% 이상인 기업 24곳 중 17개사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No	종목코드	종목명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의안 내용	자사주비중 (보통주,%)	자사주수 (백만주)	DPS (2024,원)	DPS (2025,원)
1	A003090	대웅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29.67	17.25	200	200
2	A009240	한샘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29.46	6.93	8,530	-
3	A004990	롯데지주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27.51	28.86	1,200	1,250
4	A034730	SK	• 기보유 자사주 중 특정목적 보유분(임직원보상) 328.8만주 명시 • 그 외 **1,469만주 2027년 1월까지 소각**	24.80	17.98	7,000	8,000
5	A003240	태광산업	• [주주제안] 기보유 자사주 27만주 중 특정목적 보유분(5만주) 제외 잔여분 22만주 소각 요구	24.41	0.27	1,750	1,750
6	A006800	미래에셋증권	• 사내이사 스톡옵션 31만주(자사주 신주) 부여, • 임직원 스톡옵션 자기주식 479만주(행사가 29,450원*110만주, 행사가 8만원*369만주) 교부일로부터 3년 뒤부터 5년간 행사 가능(2029~2034) • [별도공시] 보통주 1,177만주, 2우선주 17.8만주 소각 2/27, 변경상장 3/19	23.13	131.93	250	300
7	A002030	아세아	• [별도공시] 기취득 자기주식 1.4만주(약 40억원) 소각 3/31 예정	20.80	0.43	5,330	5,600
8	A002380	KCC	• 기보유 자사주 153만주 중 35.8만주 특정목적(임직원보상) 최대 4년내 분할 처분	17.24	1.53	10,000	15,000
9	A000150	두산	• 기보유 자사주 중 63만주(발행주식총수 3%) 특수목적 보유(임직원보상) 명시 • 8.5만주 '27.2월 처분 예정 • 잔여 257만주 연내 소각 예정	15.99	2.59	2,000	4,000
10	A007310	오뚜기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4.18	0.57	9,000	9,000
11	A009970	영원무역홀딩스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4.03	1.89	5,350	6,576
12	A088350	한화생명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3.49	117.14	-	-
13	A000810	삼성화재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3.44	6.18	19,000	19,500
14	A011780	금호석유화학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3.44	3.50	2,200	1,700
15	A005830	DB손해보험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2.60	8.74	6,800	7,600
16	A000120	CJ대한통운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2.57	2.87	800	800
17	A006260	LS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2.35	3.85	1,650	2,500
18	A001450	현대해상	• 기보유 자사주 268.2만주는 특수목적 자사주로 보유처분 예정 • 잔여 830만주는 개정상법에 따라 기한 내 전량 소각 예정	12.29	10.99	-	-
19	A030000	제일기획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1.96	13.76	1,230	1,230
20	A007340	DN오토모티브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1.53	6.75	1,000	1,000
21	A012750	에스원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1.02	4.19	2,700	3,200
22	A267250	HD현대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0.54	8.32	3,600	4,000
23	A032830	삼성생명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0.21	20.43	4,500	5,300
24	A011790	SKC	• 자사주보유처분계획 없음	10.03	3.80	-	-

자료: DART,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주제안 내역 나타난 '개정상법보다 더 강한' 의안들

● **행동주의펀드 내지 경영권 분쟁 대상의 주주제안에 의한 정관변경 의안에도 주목**

- 코스피 200 기업 중 주주제안에 의한 정관변경 의안이 상정된 기업은 총 7개사. 경영권 분쟁의 영향을 받는 3개 기업과 국내외 행동주의펀드의 영향을 받는 4개 기업
- 공통적으로 이사 견제 기능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안건들이 상정.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한단계 더 강력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환원을 요구

LS증권 리서치센터

주주제안 정관변경 의안이 상정된 코스피 200 기업 목록

No.	기업코드	기업명	주주제안 주체	주주총회일	내용 (주주제안에 의한 정관변경 의안)
1	A005830	DB손해보험	얼라인파트너스	2026-03-20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2	A010130	고려아연	유미개발, 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2026-03-24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감사위원 독립성 강화), 액면분할, 집행임원제도 도입, 주주총회 의장 변경, 이사회 소집절차 변경 등
3	A000670	영풍	케이젯정밀	2026-03-25	ESG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 현물배당 및 분기배당 도입 등
4	A000240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2026-03-26	이사의 결격 및 당연퇴임사유 추가
5	A003240	태광산업	트러스톤자산운용	2026-03-31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 선임독립이사제도 도입,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액면분할 등
6	A021240	코웨이	얼라인파트너스	2026-03-31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등
7	A051910	LG화학	팰리서캐피탈 UK	2026-03-31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자료: DART, LS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행동주의투자자의 주주제안이 이미 진행중인 기업들

● **이미 주주제안과 적극적 주주행동이 시작된 기업들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 상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외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 활동 증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행동주의투자자들의 주주제안 내역

No.	기업코드	기업명	행동주의투자자/펀드	시작일	목적
1	A068940	셀피글로벌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	2025-07-09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장악, 경영진 견제, 주주권 보호 강화 요구
2	A011000	진원생명과학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	2025-07-28	이사회 장악을 통한 경영권 확보 및 경영진 보수제도 개선 요구, 경영효율성 및 기업가치 제고 추진
3	A002380	KCC	라이프자산운용	2025-09-25	보유중인 삼성물산 지분의 활용 목적과 계획 공개, 자본효율성·투명성 제고 요구, EB발행 등 지분 운용계획 공개 요구 등
4	A068790	DMS	박성표	2025-10-17	경영 투명성 제고, 감사 선임, 주주권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 촉구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
5	A051910	LG화학	팰리서캐피탈 UK	2025-10-22	자사주매입, 이사회 개편(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업 분할 등 저평가 해소 및 기업가치 제고 요구
6	A026890	스틱인베스트먼트	얼라인파트너스	2025-10-30	적극적 행동주의 캠페인 전환 공식화, '임직원 보상 목적 제외 자사주 전량 소각' 요구로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 11/14까지 구체적 자사주 처분·소각 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 방안 공개 요구
7	A001460	BYC	트러스톤자산운용	2025-11-21	이사회 개편(전문성·독립성 강화)
8	A005830	DB손해보험	얼라인파트너스	2026-02-09	이사회 진입을 통한 경영 견제, 감사 교체, 내부거래위원회 재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9	A002380	KCC	트러스톤자산운용	2026-02-11	삼성물산 지분 유동화,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
10	A244920	에이플러스에셋	얼라인파트너스	2026-02-11	정관 변경,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비핵심자산 매각, 고변동성 금융자산 처분 및 투자 중단, 주주가치 연계 보상체계 개편,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기업 가치 제고 방안 마련
11	A248070	솔루엠	얼라인파트너스	2026-02-11	사업구조 개편, 이사회 독립성 강화, 지주사 전환, 이사 및 감사 선임
12	A145720	덴티움	얼라인파트너스	2026-02-11	정관 변경, 감사 선임, 이사회 개편(전문성·독립성 강화)
13	A079940	가비아	얼라인파트너스	2026-02-11	이사 및 감사 선임, 대표이사 보수한도 승인, 현금배당 실시 등 주주가치 제고
14	A003240	태광산업	트러스톤자산운용	2026-03-13	자사주 소각,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및 3%룰 정관 반영,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주식 액면분할, 핵심부동산 매각·개발, 기업가치제고계획 수립 요구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Part Ⅱ

2026 정기주총 의안 변화

개정상법 반영하는 정기주총
의안상 주목할 포인트 -환원영역

①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 올해에도 이어지는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항목 정관개정

- 2023년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지정(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 분리,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제도 도입으로 선진국식 배당예측가능성 확보. 2024년 말에는 분기배당 역시 배당예측가능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 지난해 정기주총부터 분기배당 배당예측가능성 제고 항목의 정관변경 진행
-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른 동등배당 원칙 적용: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 등 포괄)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책 도입 및 법률 개정 내역

정책명	일시	주요 내용
상법 개정	2020-12-29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및 3% 의결권 제한 규정(3%룰) 등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제350조 3항 삭제) 등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	2023-01-31	•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 이후로 배당 기준일 정할 수 있도록 先배당액 결정, 後배당 기준일 지정 정책 도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2024-04-02	•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공시 이행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등
자본시장법 개정	2024-12-27	• 분기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 삭제 및 기업의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신규상장 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상장법인에 직접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화 • 정기보고서 공시 강화,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최소 납입기일의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자료: 금융위원회, KRX, AJURI, LS증권 리서치센터

② 자사주 소각 계획

No	종목코드	종목명	주식소각 관련 의안 내용	자사주지분율 (보통주,%)	소각규모 (보통주,억원)
1	A005930	삼성전자	• 기보유 자사주 중 특정목적 보유분(임직원보상) 3,915만주 '27 정기주주총회일 이전까지 지급 계획 • 그 외 보통주 7,336만주, 우선주 1,360만주는 소각대상 자사주 명시	2.0	147,087
2	A034730	SK	• 기보유 자사주 중 특정목적 보유분(임직원보상) 328.8만주 명시, 그 외 1,469만주 2027년 1월까지 소각	24.8	50,827
3	A000150	두산	• 기보유 자사주 중 63만주(발행주식총수 3%) 특정목적 보유(임직원보상) 명시, 8.5만주 '27.2월 처분 예정 • 잔여 257만주 연내 소각 예정	16.0	29,529
4	A066570	LG전자	• LG정보통신 합병, 지주사 체제전환 과정에서 일시적 회사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목적 취득분(보통주 1,749주, 우선주 4,693주) 소각. 감자기준일 4/28, 변경상장 5/15	0.1	20,323
5	A068270	셀트리온	• 기보유 자사주 1,234만주 중 특정목적 취득분 일부(323만주) 연내 처분 • 잔여 911만주 주주총회 승인시 당일 즉시 소각	5.4	18,402
6	A033780	KT&G	• 기보유 자사주 1,087만주 전량 소각 • 특수목적(임직원 보상) 자사주 최대 3만주 취득 및 처분 예정	9.5	17,066
7	A006800	미래에셋증권	• 사내이사 스톡옵션 31만주(자사주 신주) 부여 • 임직원 스톡옵션 부여 통한 자기주식 479만주 교부(행사가 29,450원*110만주, 행사가 8만원*369만주) 교부일로부터 3년 뒤부터 5년간 행사 가능(2029~2034) • [별도공시] 보통주 1,177만주, 2우선주 17.8만주 소각 2/27, 변경상장 3/19	23.1	7,851
8	A000880	한화	• 기보유 자사주 558만주 중 445만주 소각, 113만주 특정목적 보유(임직원보상) 명시	7.5	5,411
9	A030200	KT	• 기보유 자사주 중 특정목적 보유분(임직원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594만주 • 잔여 498만주 중 484만주 소각(주주환원), 14만주 임직원 보상 처분	4.3	2,870
10	A003240	태광산업	• [주주제안] 기보유 자사주 27만주 중 특정목적 보유분(5만주) 제외한 잔여 자사주 22만주 소각 요구	24.4	2,521
11	A001450	현대해상	• 기보유 자사주 268.2만주는 특수목적 자사주로 보유처분 예정 • 잔여 830만주는 개정상법에 따라 기한 내 전량 소각 예정	12.3	2,515
12	A017800	현대엘리베이터	• 기보유 자사주 중 특정목적 보유분(임직원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최대 50만주 명시 • 잔여 자사주는 별도 보유처분계획 없을시 기한내 소각 검토	7.6	2,176
13	A259960	크래프톤	• 26~28 3년간 7천억원 이상 자기주식 장내취득 및 전량소각 예정 • 기보유 자사주 중 특정목적 취득분 231만주 명시, 84만주는 소각대상	7.1	1,949
14	A017670	SK텔레콤	• 기보유 자사주 180만주 중 특정목적 보유분(임직원보상) 19.6만주 명시 • 잔여 160만주 이사회 의결 통한 소각 예정	0.8	1,251

자료: DART, LS증권 리서치센터

② 자사주 소각 계획 (cont.)

No	종목코드	종목명	주식소각 관련 의안 내용	자사주지분율 (보통주, %)	소각규모 (보통주, 억원)
15	A002790	아모레퍼시픽홀딩스	• 기보유자사주 중 보통주 300만주 소각(3/9), 1우선주 6만주 전량 소각 예정 • 잔여 보통주 18만주 특정목적 보유(임직원보상) 및 1만주 처분 예정	0.2	809
16	A402340	SK스퀘어	• 기보유 자사주 특수목적 취득분 26.6만주 처분 • 12.8만주 추후 이사회 의결 통한 소각 예정	0.3	782
17	A017960	한국카본	• 기보유 자사주 154만주 중 60만주 소각. 나머지 94만주 소각 안건 결의 완료로 사실상 전량 소각	3.0	745
18	A035720	카카오	• 기보유 자사주 242만주 중 142만주 주식소각(효력발생 4/30, 변경상장 5/19) • 잔여 100만주 특정목적 보유분(임직원보상) 명시	0.6	710
19	A128940	한미약품	• 기보유 자사주 12만주 중 8.5만주(70%) 소각 • 그 외 3.6만주 특정목적(임직원보상) 보유, 2년간 분할처분 예정	1.0	441
20	A139480	이마트	• 기보유 자사주 중 특정목적 처분(신세계푸드와 포괄적 주식교환) 52만주(~'26.6월) • 잔여 28만주 소각 예정	2.9	264
21	A069960	현대백화점	• 기보유 자사주 112만주 중 특정목적 취득분 28.5만주 소각. 감자기준일 4/28, 변경상장 5/8	5.2	245
22	A008930	한미사이언스	• 기보유 자사주 64만주 중 45만주(70%) 소각 • 그 외 19만주 특정목적(임직원보상) 보유, 3년간 분할처분 예정	0.9	169
23	A002030	아세아	• [별도공시]기취득 자기주식 1.4만주(약 40억원) 소각 3/31 예정	20.8	39
24	A051900	LG생활건강	• 기보유 자사주 중 일부(보통주 1만주, 우선주 3천주) 소각. 감자기준일 4/27, 변경상장 5/15	4.2	24
25	A009830	한화솔루션	• 기보유 자사주 보통주 244만주 전량 특수목적 보유(임직원보상) 명시 • 우선주 3만주 소각 예정	1.4	8
26	A028260	삼성물산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특정목적 취득분 1,400주 소각 감자기준일 4/24, 변경상장 5/13 • 기보유분은 보통주 781만주	4.6	4
27	A006040	동원산업	• 기보유 자사주 7천주 전량 소각. 감자기준일 5/4, 변경상장 5/20	0.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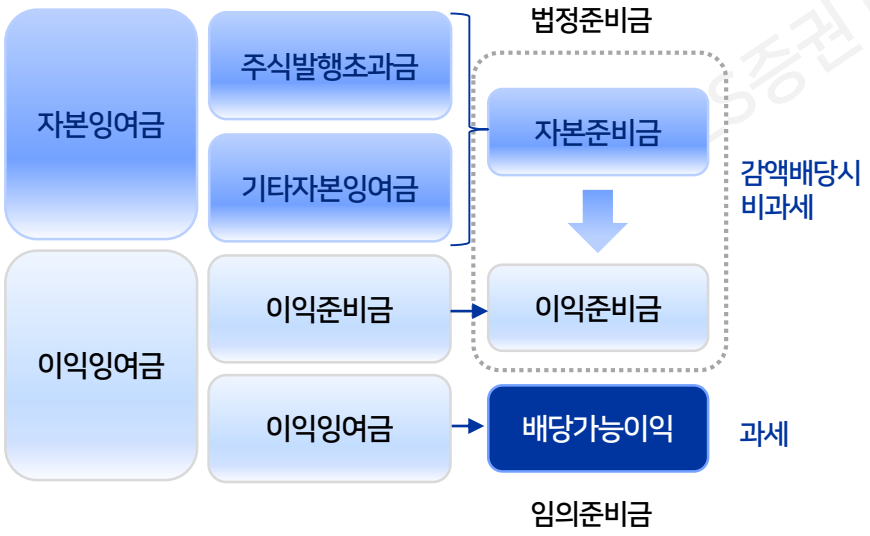
자료: DART, LS증권 리서치센터

③ 비과세 감액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소

● **대형 금융지주사들에 의해 주도되는 감액배당**

- 근거법령(상법 제461조의 2)에 따르면,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 가능
- 감액분을 배당재원으로 활용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주주와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을 감자의안에 해당
- 다만, 이익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관계로 비교적 자사주 소각 대비 즉각적인 시장 효과는 제한

감액배당 관련 용어 및 개념도



자료: DART,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200 기업 주총 의안 中 감액배당을 위한 감자안

No	종목코드	종목명	감자규모 (억원)	DPS (24AS,원)	DPS (25AS,원)	자본유보금 (3Q25,억원)
1	A055550	신한지주	99,000	2,160	2,590	121,020
2	A105560	KB금융	75,000	3,174	4,367	171,006
3	A086790	하나금융지주	74,000	3,600	4,105	105,767
4	A402340	SK스퀘어	58,900	-	-	59,121
5	A268280	미원에스씨	51,600	2,500	3,200	1,707
6	A000660	SK하이닉스	40,800	2,204	3,000	47,568
7	A017670	SK텔레콤	17,000	3,540	1,660	17,710
8	A066970	엘앤에프	3,715	-	-	2,252
9	A139130	iM금융지주	2,900	500	700	15,626
10	A002790	아모레퍼시픽홀딩스	1,650	330	400	4,891
11	A035720	카카오	1,000	68	75	87,591
12	A001450	현대해상	685	-	-	1,132
13	A003030	세아제강지주	500	1,800	1,800	600
14	A161890	한국콜마	500	720	864	2,947
15	A002380	KCC	366	10,000	15,000	3,498
16	A034230	파라다이스	315	150	150	3,702
17	A017800	현대엘리베이터	199	5,500	14,010	2,589

행동주의 펀드가 자사주 소각을 요구할 만한 기업들

● **자사주: 보유 공시 기준 상향으로 새롭게 모니터링 대상이 된 기업들 주목**

- 기업 선별 요건은 ①전분기말 기준 자사주 지분율이 1% 이상이며 ②배당성향이 20% 미만인 기업 중 ③순현금 상태로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있고, ④PBR 1배 미만으로 저평가 상태에 있는 기업
- 자사주 제도 강화로 공시 의무 대상이 기존 5% 요건에서 1%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자사주 보유비중 1~5% 기업들은 별도 표기

행동주의 펀드의 자사주 소각 주주제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자사주 보유비중 1% ↑)

No	코드	기업명	업종명 (WI26)	시가총액 (억원)	자사주지분율 (2025AS,%)	배당성향 (FY1,%)	순현금 (3Q25,십억원)	PBR (FY1,X)	ROIC (3Q25,%)	ROE (3Q25,%)
1	A012330	현대모비스	자동차	374,726	1.7	14.8	7,761	0.70	3.74	9.2
2	A111770	영원무역	화장품,의류	36,025	4.0	17.6	851	0.76	4.9	8.6
3	A004370	농심	필수소비재	22,567	4.9	18.7	980	0.72	2.7	6.1
4	A375500	DL이앤씨	건설,건축	20,082	2.9	12.4	810	0.39	7.9	5.7
5	A056190	에스에프에이	기계	10,306	22.3	12.8	81	0.78	1.4	1.9
6	A192080	더블유게임즈	소프트웨어	10,650	10.3	12.6	707	0.67	7.6	14.4
7	A095660	네오위즈	소프트웨어	5,519	9.6	0.0	295	0.87	12.2	3.0
8	A104700	한국철강	철강	3,474	11.4	-208.3	385	0.39	-2.2	-0.4
9	A049070	인탑스	IT하드웨어	3,043	7.9	-263.2	237	0.42	0.2	0.0
10	A126700	하이비젼시스템	IT하드웨어	2,749	14.0	-46.9	109	0.93	-5.7	-2.0
11	A115440	우리넷	IT하드웨어	846	5.4	12.5	36	0.79	0.9	6.2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행동주의 펀드가 배당 확대를 요구할 만한 기업들

● 배당: 자본을 유보중인 저배당성향 기업들에 대한 요구 가능성

- 기업 선별 요건은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기업 중 ①배당성향이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하회하고 ②자본유보율이 지난 3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업 중 ③순현금 상태로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있고, ④PBR 1배 미만으로 저평가 상태에 있는 기업

리서치센터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확대 주주제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No	코드	기업명	업종명 (WI26)	시가총액 (억원)	배당성향		순현금 (3Q25,십억원)	PBR (FY1,X)	자본유보율 변화율(YoY,%)		
					(FY1,%)	(3Y평균,%)			2022	2023	2024
1	A003550	LG	상사,자본재	139,571	38.3	57.9	1,971	0.53	7.9	2.9	0.1
2	A000240	한국앤컴퍼니	자동차	25,253	25.2	31.6	25	0.59	3.8	2.9	6.3
3	A004370	농심	필수소비재	22,567	18.7	19.2	980	0.85	5.2	5.1	5.3
4	A011210	현대위아	자동차	22,898	20.8	25.3	337	0.63	1.8	1.8	2.6
5	A383800	LX홀딩스	상사,자본재	6,247	13.5	17.9	302	0.36	87.6	3.2	8.6
6	A049070	인탑스	IT하드웨어	3,043	-263.2	14.3	237	0.48	16.9	2.5	2.8
7	A126700	하이비젼시스템	IT하드웨어	2,749	-46.9	11.9	109	0.92	16.9	20.1	12.5
8	A049430	코메론	기계	1,659	11.8	12.2	100	0.53	8.2	6.8	12.6
9	A036640	HRS	화학	821	21.7	35.4	39	0.6	7.6	8.1	7.5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윤정).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